

# 백화점, 자존심 버리고 세일 경쟁

## 장기 불황에 연일 초저가·특가 이벤트

### “제품·서비스로 승부해야” 우려 목소리

100g당 990원짜리 삼겹살, 1만원짜리 스니커즈 운동화, 반값 내린 공기청정기까지. 유통 강자 백화점이 자존심을 접은 채 최저가 경쟁에 가세해 손님 물이에 나서고 있다. 대대적인 초저가 파격 행사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지역 백화점업계의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4%의 역신장을 기록했다. 이색 상품 등을 내세워 설 대목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흥행은 부진했고, 내수 침체에 전 자상가캐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뒤쫓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

하면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초저가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객 물이를 위해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할인율을 높인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실적에 대한 조바심은 올해 상설화 하다가피한 잇단 할인 특가전 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세일 이외에도 추가로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게 백화점의 설명이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3월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기세일 이 외에 코스메틱&럭셔리 전 등 27개의 기획전과 특별전을 열었으며, 키덜트 뮤지엄과 프라모델 페어 등 다

양한 문화마케팅 기획을 통해 매출 울리기를 시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특별전의 경우 3배, 문화 마케팅 기획은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신년맞이 아웃도어 다온점과 특집전을 시작으로 올해만 14개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매출 신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류·골프대전 외에도 가전제품 등 리빙페어, 웨딩페어 특집전까지 품목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다.

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1~2월의 저소비 기조가 3월을 넘어 4, 5월까지 이어지면 더 손 쓸 방도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지난 해 봄 세일호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영업이 부진했다지만 올 봄엔 반드시 신장세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출 부진은 이제 일시적인

경향을 넘어 백화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자존심을 떠나 매출향상을 위해선 뭐든지 할 태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가 경쟁과 무분별한 특별기획전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격 인하나 특별전을 통한 고객 모으기는 거부감을 자극, 오히려 소비심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어정쩡한 가격인하나 특별전 남발은 소비 심리를 살리지 못한 채, 역으로 해외 저가품 수입 증가 등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불황을 겪으며 일부 유통업계에서 시작된 가격 파괴 현상이 전 분야로 확대돼 디스플레이가 발생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1.37 (+4.78)

금리 (국고채 3년) 1.80%

▲ 코스닥 641.87 (+1.58)

▼ 환율 (USD) 1104.60원 (-10.00)



**안심전환대출 상담 복직**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시중은행에 출시된 2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은 시민들이 관련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LH, 광주·전남에 공공임대 3835가구 공급

### 효천·용산지구 올 착공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공공임대주택 3835가구와 32만6000㎡ 규모의 토지가 신규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4일 광주 용산지구 조성공사 재추진과 광주 효천지구 행복주택 착공 등 3392억원 규모의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토지취득이 142억원, 부지 조성공사 665억원, 주택건설공사 2208억원, 주거복지 사업 377억원 등이다. /임동률기자xian@

사업지구별로는 그간 보류했던 광주 용산지구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지난해 시작한 광주 효천·빛그린산단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2016년 공급을 목표로 광주 효천2지구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신규 착공한다. 또 도심 내 저소득층 영세민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다가구·부도매입·전세임대주택 등 2142가구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이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주택은 아파트 2018가구를 포함해 3835가구다. /임동률기자xian@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 관광공사, 다음달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7일부터 4월21일까지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실시한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융·복합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를 지원해 온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은 올해부터 종전의 창업 지원을 위한 예비창업관광사업 부문과 업종 및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관광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비창업관광사업 부문에서 선정되는 40여 개 사업(예비창업 20개, 창업 7년 이하 사업 20개)에는 사업화 자금 2500만원이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은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광주시, 전남도는 오는 4월7일 광주시청에서 '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문의, 033-738-3685).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 경기회복 기대감

### 광주상의 2분기 BSI 증가

광주지역 기업 체감 경기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준치(100)를 웃돌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내수기업과 일부 업종의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5년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지역 11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28포인트 상승한 105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2분기엔 경기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기대감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BSI는 1분기 67에서 2분기 110으로, 중소기업은 79에서 104(2Q)로 경중 뛰었다. 수출기업도 92에서 129로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업체 전체 분포에서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 비중이 전분기 17.1%에서 30.7%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 비중도 25.4%로 나타나 체감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드러났다. 내수기업도 1분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했음에도 경기침체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지 못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체감경기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더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2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소 제막식'에서 전기차 인프라 공동이용 협약을 맺은 한전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광주 송정·나주역에 전기차 충전기 6기 설치

### 광주시·전남도·나주시 협약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KTX 송정역 등 광주지역 교통 요충지에 전기차충전기 6기(급속 1·완속 5)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광주공항 등 교통요충지에도 12기(급속 5·완속 7)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남지역 주요거점에도 17기(급속 7·완속 10)의 충전기를 마련한다. 한전은 모든 기관 및 전기차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개방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의 '충전네트워크'(Star-Network)를 구축, 전기자동차의 장거리 이동방안도 마련했다.

한전은 이날 KTX 나주역과 광주 송정역에 6기(급속 1·완속 5)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광주공항 등 교통요충지에도 12기(급속 5·완속 7)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남지역 주요거점에도 17기(급속 7·완속 10)의 충전기를 마련한다. 한전은 모든 기관 및 전기차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개방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의 '충전네트워크'(Star-Network)를 구축, 전기자동차의 장거리 이동방안도 마련했다.

조환의 한전 사장은 “전기차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전해 햇빛과 바람으로 채워진 ‘V2G(Vehicle to Grid)’를 이용해 밤에는 충전하고, 낮에는 한전 전력계통으로 역전송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 초혼  | 추천 회원   | 재혼  |
|---|---|---|
|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차선방 100평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010-2632-77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